

## AI Fuhr 박사, 전도서, 세션 3

© 2024 알 푸어(AI Fuh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설교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헤벨 개념에 대한 친숙함을 넘어, 헛된 것의 헛됨은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표현이며, 우리가 전도서와 독특하게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는 또 다른 기본 문구라고 말합니다. 태양 아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타하트 하세메시(tahat ha-shemesh)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인물이자 전도서의 현명한 현자인 코헬렛이 헤벨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인 이트론을 찾기 위한 탐구에 참여하는 관점의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이제 대중적인 가르침과 설교에서는 솔로몬이나 코헬렛의 관점이 어떤 면에서 타락했거나 불경건하거나 인본주의적이거나 심지어 쾌락주의적이었다는 생각을 해 아래 어법과 연관시키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하늘 아래의 관점이나 하늘 아래의 관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관점인 반면, 해 아래 관점은 인간의 관점이라고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Kohelet이 Yitron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태양 아래의 관점은 단순히 이 행성의 살아있는 삶에서 비롯되는 관점의 문제일 뿐이라는 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헤벨세계에서는 반드시 천국에서 수직으로 아래로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수평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본다. 타락한 관점도 아니고, 확실히 현명하지 못한 관점도 아닙니다. 사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 중 하나는 코헬렛이 지혜의 렌즈를 통해 자신의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삶을 관찰하고 경험하며 지혜를 통해 그것을 걸러냅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계시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신적인 영감을 받은 지혜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서가 영감을 받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헬렛이 여행을 시작하는 관점은 단순히 수평적입니다.

그는 제한된 관점, 즉 인간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를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모든 것을 가지고 삶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 아래라는 문구를 보면 전도서에서 이 문구가 29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양한 맥락에서 그리고 다른 모티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안한 것 중 하나는 전도서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동반자 또는 적어도 대체 문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tahat ha-shemayim*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하'의 관점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문학적 대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하 관점과 해 아래 관점 사이에는 신학적인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도서에서 발견한 하늘의 관점이나 문구 아래에서 이들 중 일부를 빠르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전도서의 해 아래 문구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적어도 그 모티프를 탐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펼쳐서 나와 함께 1장과 13절을 살펴보세요. 하늘 문구 아래. 사실 우리는 자서전 서문의 일부에서 이것을 봅니다.

나 코헬렛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느니라. 나는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지혜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 시점에서 하늘에서 수직으로 하향식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아마도 선지자들이 가져왔을 일종의 계시적 관점을 갖는 것은 코헬렛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현명한 현자로서 삶을 관찰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도서에서 우리는 영감받은 문학을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 코헬렛은 단순히 이 타락한 세상의 삶을 관찰하기 위해 사용했던 렌즈를 통해 지혜를 적용하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3장과 1절에서도 같은 어법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시를 소개하면서 서문에는 “천하에 범사는 다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활동은 하늘 아래 있기 때문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시간이나 시간에 관한 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그것이 이 세상의 현자가 적용한 타이밍의 적절성을 다루는 것이라면 실제로 이 천하의 어법은 우리가 전도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 아래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해 아래서 사는 삶과 하늘 아래서 사는 삶 사이에 뚜렷한 또는 신학적 차이가 없다는 이 점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2장과 3절을 살펴보십시오. 2장과 3절은 다시 전도서의 자서전적 진술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Kohelet이 시도한 것입니다. 와인으로 나 자신을 응원하고 어리석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지혜로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약간 역설적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일생의 며칠 동안 하늘 아래에서 무엇을 할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도서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해 아래 관점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남성이 힘든 일을 하는 가치 있는 활동의 맥락에서 이 문구를 사용하면 그것은 부정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덧없는 나날들.

다시 한 번 관점의 문제로, 코헬렛은 지혜의 렌즈를 통해 그러나 태양 아래의 관점에서 헤벨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수평적인 관점이고, 타락한 관점도 아니며, 세상적인 관점도 아니며, 그가 이 여정을 시작하는 동안 그는 실천적인 이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이제 지혜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는 전도서에서 모티브의 역할을 하지만 관점의 문제도 취합니다. 그리고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지혜는 우리가 연구한 내용을 전도서에 적용하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즉, 그것은 지혜문학이므로 우리는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지혜문학 연구에 적합한 참여 규칙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것을 관점의 문제로 다루겠습니다. 우리의 코헬렛은 일종의 은밀하고 쾌락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자신의 탐구를 수행했습니까? 아니면 전도서에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활동과 성찰을 통해 탐구하면서 실제로 지혜의 렌즈를 통해 보고 있었습니까? 저는 본문 자체가 탐구와 여정이 지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확언하고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몇 분 전에 자서전 부분이 시작되는 1장과 12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나 코헬렛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나는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지혜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여기서 몇 줄만 스크롤해 보면 16절에서도 같은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보라,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그 누구보다 지혜가 더 자라났느니라. 나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지혜의 총명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도서에서 발견하는 것은 코헬렛이 지혜롭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지혜로 여행을 시작했지만 더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해 지혜를 통해 자신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가 이 여정에서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떤 해결책이라도 찾고 싶어한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광기와 어리석음 속에서 잠재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임을 깨달았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두 번째 강의에서 Hevel 문구와 함께 그것을 보았습니다. 전반에 걸쳐 코헬렛의 지혜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구절들, 2장 3절에서 나는 술로 기운을 북돋우고 어리석음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으며, 내 마음은 여전히 지혜로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축적하고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유용성에 대한 그의 자서전적 증언 후 조금 아래로 스크롤하면 우리 이트론을 찾는 데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득, 우리의 잉여, 우리의 이점.

9절에 보면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내 지혜는 나와 함께 있었다. 내 요점은 간단합니다. 전도서 어디에서도 코헬렛이 퀘스트를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거나 이트론의 물건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날 만큼 장비가 부족하고

현명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삶의 조건에 대한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사실, 책 끝부분의 에필로그에서도 코헬렛의 지혜에 대한 동일한 확언을 찾을 수 있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 선생은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지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으셨지만 지혜를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선생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참됩니다. 그러므로 본문 자체는 전도서 전체에 전달되는 언어와 단어와 개념의 정확성과 지혜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관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Kohelet이 현명한 눈을 통해 여행을 시작하고 지혜의 렌즈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탐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지혜의 가치를 탐구합니다. 즉, 그는 지혜 자체가 헤벨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제공하는지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가 찾고 있는 이트론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전도서에서 발견한 것은 코헬렛의 지혜에 대한 평가에 일종의 긴장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가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토브야, 괜찮아.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점을 제공합니다. 어리석은 것보다 지혜로운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궁극적으로 헤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혜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가 발견하게 될 것은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활동의 신비 중 일부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코헬렛이 언급하는 헤벨판결의 상당수는 이렇다.

예를 들어, 의인은 악인의 대가를 받고, 악인은 의인의 대가를 받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리석은 자라면 정말 예상했던 일이 현명한 자에게도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세상의 모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베팅을 헤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적절해 보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맞아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며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즉, 인간은 지혜를 적용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자 코헬렛(Kohelet)은 그 지혜가 좋은 반면 확실히 이점을 제공하지만 궁극적으로 보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관찰했습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그러한 원칙을 봅니다. 잠언에서 발견한 교훈들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그러면 당신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제가 보여주고 싶은 예가 건강한 사람, 육체적 단련을 추구하는 사람, 신체 단련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 올바른 식습관, 운동,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적절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삶. 그러나 우리 모두는 때때로 마라톤 선수를 그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차에 치이는 거 맞죠? 아니면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올바른 식습관, 적절한 식습관, 운동 및 모든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코헬렛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좋은 음식을 다 먹고 운동도 하고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했지만 땅에서 단절된 남자와 여자를 알고 있습니다. 암에 걸렸지만 올바른 식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며 매일 도넛을 먹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재방송만 시청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활동적인 것이 더 좋습니다. 즉, 지혜는 우리에게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코헬렛은 지혜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에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그것은 지혜에 관해 전도서에서 코헬렛이 가져온 많은 성찰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혜의 가치, 즉 인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의 가치를 단언합니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모두에서 지혜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2장과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에 대한 몇 가지 간략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2장과 절, 실제로 우리는 12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지혜와 광기와 어리석음을 고려하기 위해 생각을 돌렸습니다. 왕의 후계자는 이미 행해진 일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처럼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 속에 눈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을 걷는다. 그러나 나는 같은 운명이 두 사람 모두에게 닥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죽음은 모든 것의 평준화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둘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나는 마음 속으로 어리석은 자의 운명이 나에게도 닥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어떤 사람보다 지혜가 더 커진 코헬렛은 자신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여기도 지옥이다'라고 말했는데, 어쩌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가리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지혜 자체는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래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둘 다 잊혀질 것이다. 바보처럼 현명한 사람도 죽어야 한다. 그러나 전도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지혜가 입증되고 지혜의 가치가 입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십시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청년이 늙었지만 어리석어서 더 이상 경고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왕보다 낫습니다. 청년은 감옥에서 왕위에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왕국 내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해 아래서 살고 다니는 자들이 모두 왕의 후계자인 청년을 따르는 것을 보았다. 그 이전의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으나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 후계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 지옥이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니라.

그리하여 현명한 청년은 코헬렛이 반성하는 세계에서 출세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 청년의 지혜는 어떠한 지속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코헬렛이 찾고 있는 Yitron의 아이디어처럼 이익은 있었지만 그렇게 압도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전도서에서 확률론적 결과를 반영하는 많은 잠언, 즉 현재의 의미에서 또는 현 시대에 지혜를 적용하는 데 이점을 제공할 잠언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11장의 잠언 중 일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문에서 이 중 몇 가지를 읽었습니다. 11장 1절,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도로 찾으리라.

즉, 당신은 거기로 나가서 때로는 삶과 투자, 그리고 당신이 그러한 지혜를 적용할 삶의 추구가 무엇이든 간에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즉, 베틀을 헤지하세요.

모든 일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성공하고 어떤 일이 실패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면서 당신은 여러 가지 일을 추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마십시오.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땅에 비를 쏟아 붓습니다.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든지 그 쓰러진 곳에는 그대로 있느니라.

조건이 맞을 때 활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전도서의 지혜에는 시기의 적절함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행동해야 할 때를 알고 자제해야 할 때를 압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보장 없이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기회에 그러한 지혜와 시기를 적용해야 합니다. 바람을 보는 사람은 심지 않을 것이고, 구름을 보는 사람은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즉, 항상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면 인생에서 성공할 기회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겪어야 할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 그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적절한 시간인가요? 글썄요, 만약 당신이 그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아무 여자에게도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데이트도 하지 않을 것이고 결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을 거절한다면, 글썄, 그 데이트에 결코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 벤처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아시다시피, 완벽한 타이밍이 발생하거나 완벽한 조건이 발생하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다면 그러한 완벽한 조건이 일치하는 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러한 다양한 모험에서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코 성공하지 못하거나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확률론적 지혜의 적용이다. 코헬렛은 자신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단순히 그의 통제를 벗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보다 먼저 나아간 어떤 사람보다 지혜가 더 커지고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란스러운 삶, 험난한 삶 속에서도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전진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11장과 5절은 이에 대해 계속합니다. 바람의 길을 모르고, 몸이 모태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모르듯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현명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왜 자신의 시간에 일을 하시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미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전도서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몇 주 안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은 올바른 주식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기간에 수백만 달러, 심지어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도록 올바른 종류의 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가장 현명한 주식 고르는 사람, 가장 현명한 기업 자본가, 심지어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는 가장 현명한 사람조차도 여전히 미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내기를 걸고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의 위험 감수에 관한 잠언 중 일부는 6절로 끝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쉬지 말라 무엇이 성공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이든 저것이든, 아니면 둘 다 똑같이 잘 될 것인지.

다시 말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우리가 확률적인 결과를 찾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섭리적 확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즉, 코헬렛은 지혜의 적용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식합니다.

즉, 당신은 모든 올바른 선택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과를 가져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인식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섭리적 확률의 적용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코헬렛이 지혜의 렌즈를 통해 삶의 문제를 탐구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전도서에서

지혜가 일종의 모티브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타락한 삶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인 니트론을 얻기 위해 식탁으로 가져오지만, 두 번째로 지혜가 두꺼비를 제공하는지 여부, 일시적인 이점 또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거나 삶을 탐색하는 데 좋은 것을 제공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서는 지혜문학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전도서에서 잠언, 성찰 연설, 지혜로운 현자가 일종의 줄거리를 놓고 씨름하고 교훈, 그 스토리라인의 지혜에 기초한 원리 또는 교훈입니다.

구약의 지혜 자료의 일부로서 그것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서에서 우리는 그것을 서술적인 본문처럼 읽지 않을 것이고, 예언적인 본문으로 읽지도 않을 것이며, 전도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서, 그래서 우리는 태양의 관점에서 그 수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미래를 선포하시는 일종의 예언적 신탁을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전도서가 디자인된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책을 통해 하시는 일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전도서에서 우리가 따르는 일부 해석학적 지침, 예를 들어 교훈의 실제적인 측면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구약의 대표적인 지혜문학인 잠언처럼 우리도 전도서에서 삶의 실천적인 측면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예를 몇 가지 보았습니다. 7장과 10장에서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10장과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NIV를 읽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는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 빠지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도 있다. 돌을 채굴하는 사람은 돌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통나무를 쪼개는 사람은 누구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는 이 글을 읽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내 말은, 코헬렛이 정말 구덩이와 뱀, 돌과 통나무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 뒤에 실제로 어떤 종류의 지혜에 기초한 교훈이 있습니까? 나는 New Living Translation의 다소 해석적인 번역이 실제로 여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1996년판 NLT를 들고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변경되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96역에서는 8절과 9절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보면 다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물을 파다 보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벽을 허물다 보면 뱀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채석장에서 일하다 보면 돌이 떨어져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나무를 벨 때 도끼를 칠 때마다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 선은 생명의 위험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매우 해석적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엔 그것이 실제로 목표에 도달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요점은 무엇이든 성취하려면 인생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에 대한 후속 조치는 인생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데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10절에 “무딘 도끼에는 힘이 많이 들리니 그 날을 갈으라”고 했습니다. 즉,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도끼를 휘두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명하게 일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사실, 여기 본문은 다시 해석적으로 번역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지혜의 가치입니다.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는 전도서에서 이러한 종류의 실천적 지혜의 교훈들이 책 전체에 흩어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또 다른 것 중 하나는 쾌락주의 철학이나 세계관에 대한 일종의 성찰로

해석될 수 있지만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10장과 1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와인은 인생을 즐겁게 해줍니다.

하지만 돈은 모든 것의 답이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읽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글썄, 그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과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어떻게 일치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과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과 어떻게 일치합니까? 내 말은, 그것은 성경이 다른 곳에서 돈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대중 교육에서 Dave Ramsey나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 접했을 수 있는 종류의 교육은 투자 방법과 저축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교훈을 가르칩니다. 은퇴와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방법, 금융 교사들이 하는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이 그 비오는 날을 위해 항상 약간의 돈을 저축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긴급 상황 때문에 필요할 때.

비상 자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상 자금을 주식에 담아두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비상 자금을 집에 두지 마십시오.

비상 자금을 접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묶지 마십시오. 왜? 왜냐하면 그것이 액체가 아니고, 접근할 수 없다면, 필요할 때 실제로 아무런 유용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헬렛은 우리에게 돈과 관련해서도 같은 종류의 지혜를 준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돈은 엄청난 유연성을 발휘합니다. 웃음을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좋지만 활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와인은 인생을 즐겁게 해주지만 모든 것의 답은 돈입니다. 즉, 돈은 사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매우 유연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용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살펴보면 Kohelet이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이라는 의심의 이점을 제공하고 단순히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의 교훈으로 간주합니다. 이 속담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인생을 헤쳐나가는 데 큰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지혜가 불확실한 세상의 삶에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헬렛은 지혜가 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때때로 일이 예상대로 일어나지 않는 필멸의 타락한 세상에서 삶을 탐색하는 데 이점을 제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재능이 있으며 현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현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참은. 좋은.